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4. 5.(목) / 총 3매(본문3)
담당 부서	교통안전 복지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정수, 사무관 오한영, 주무관 박소연 • ☎ (044) 201-3863, 3864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6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6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봄 나들이 갈 때 교통안전도 챙기세요

봄 행락철 교통안전캠페인…사전 점검·단속·순찰 등 대책 강화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’ 중 하나인 ‘교통안전 종합대책’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봄 행락철(4~5월)을 맞아 캠페인, 단속·점검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.
- 봄 행락철은 가족 단위 나들이, 단체관광, 연휴 기간(근로자의 날, 어린이 날, 부처님 오신 날) 등으로 인해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대형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.
 - 지난해 봄 행락철의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447만여 대로 다른 기간(435만 대)에 비해 약 2.7%p가 높고, 월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18,110건으로 역시 다른 기간(18,028건)에 비해 많다.
 - 특히, 작년(5. 11.)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졸음운전 사고(14명 사상자 발생) 등 봄 행락철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 운행도 여전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.
 - 이에, 봄 행락철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1월 23일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.

□ 먼저 교통안전 홍보·캠페인을 강화한다.

- 오는 4월 24일 교통안전 공청회를 개최하여 범부처 공통 슬로건* 발표 및 캠페인 영상 상영 등 본격적으로 교통안전 홍보를 시작함을 선포하고,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TV, 신문, 뉴미디어,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파할 계획이다.

* 슬로건: 생명운전,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(3.19~25.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)

- 또한, 5월을 '교통안전의 달'로 선정하여 교통안전 국제컨퍼런스*(5.16~18, 제주)에서 속도관리 정책 관련 특별 세션을 마련하고, 교통안전문화발전대회(5.15), 교통사고줄이기 한마음 대회(5. 29.) 등을 활용하여 교통안전정책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.

* 스웨덴, 미국, 호주 등 교통선진국의 공무원, 전문가 등 50개국 500여 명 참여

- 아울러, 봄 행락철 졸음운전, 과속운전 등 위험 운행에 대한 위험성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.(4월~)

□ 봄 행락철을 맞아 차량 사전 점검, 안전 순찰 및 단속도 강화한다.

- 단체 여행 증가에 대비하여 국토부·경찰청·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요 관광지 전세 버스 대상 안전사항*을 일제점검(4. 4. ~4. 26., 10개 지역)하고 있으며, 운수단체와 합동으로 차량 안전 상태 점검 및 운전자 안전수칙 교육 등을 상시 진행 중(4~5월)이다.

* 음주운전, 운전자 자격여부, 속도제한장치·운행기록계 작동, 재생 타이어 불법사용, 안전띠·소화기·탈출용 비상망치 설치 여부 등

- 또한, 고속도로 사고 취약시간대 및 사고 다발 구간에 안전순찰 활동을 확대(10회/일)하고, 졸음운전 취약시간대 '졸음알리미'를 상시 운영(300개소)하며, 사고·고장차 무료 견인 등 2차사고 예방 조치도 실시한다.

- 불법 운행 단속을 위해 고속도로 TG, 휴게소 주변에서 차내 음주 가무,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한 순회 지도 및 합동 단속(교통안전공단·경찰청·지자체)을 실시하고, 고속도로 내 대열운행 및 안전기준 위반(후부 반사판 훼손 등) 행위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단속도 강화한다.
- 한편,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
 - 경찰청, 운수단체, 119 구급대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, 사고 취약시간대 구난 견인차량 배치를 확대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, 구난 체계를 구축했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봄 행락철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고, 특히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은 절대로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”며,
 - “앞으로도 행락철, 명절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교통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- 또한, “올해가 ‘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’ 프로젝트의 원년인 만큼 봄 행락철 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역량을 다할 것”이라면서,
 - 앞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가 시작되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하는 것과 함께 안전 운전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오한영 사무관(☎ 044-201-386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